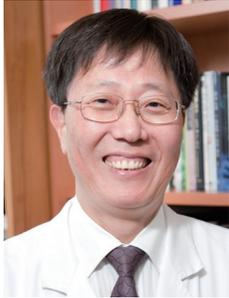


# 새로운 질병 찾아낸 ‘알츠하이머 박사’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1864년 독일 남부 마르크브라이트에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그는 베를린, 튀빙겐, 뷔르츠부르크에서 의학을 배우고 1887년 의과대학 졸업 후 프랑크푸르트의 정신질환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은 한편 환자들의 임상경과와 사망 후의 부검기록을 비교 검토하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의 연구는 이듬해 같은 병원에 프란츠 니슬이라는 청년 신경학자가 합류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만약 니슬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알츠하이머의 회고에서 보듯 니슬은 1895년까지 7년 동안 낮에는 환자에

관해, 저녁에는 뇌 조직의 관찰소견에 관해 토론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알츠하이머가 배워 평생의 연구 수단으로 애용한 ‘신경세포의 은염색’을 고안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긴 니슬은 후일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병원의 알츠하이머의 환자 중에는 장소를 인지하는 능력과 기억력에 장애가 있고, 읽고 쓰기에도 문제가 있는 아우구스테 데터라는 51세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환각을 보거나 근거 없이 가족들을 의심하는 등 정신기능에도 장애가 나타날 때쯤 알츠하이머는 당시의 가장 유명한 정신과 교수 에밀 크레펠린이 교수로 있던 뮌헨으로 옮겼는데,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은 1906년 데터가 죽자 그녀의 의무기록과 뇌를 뮌헨으로 보내 알츠하이머가 검토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이 증례를 1906년 11월 튀빙겐에서 열린 학회에서 최초로 보고하였다.

두 번째 증례는 1907년에 치매 증상으로 뮌헨대학에 입원한 요한 F. 라는 56세 남성이었다. 3년 후에 사망한 이 환자의 부검 결과도 얇아진 대뇌피질, 세포의 죽음에 동반된 얽혀있는 신경섬유다발,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존재하는 세포독성물질로 보이는 아밀로이드판 등 알츠하이머가 보고한 새로운 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조직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증례 이후 크레펠린은 제자의 명예를 위해 이 병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자신이 저술한 교과서에서 알츠하이머병을 따로 소개하였다. 그 결과 1911년경에는 유럽 의사들이 모두 알츠하이머의 기준에 따라 이 병을 진단하게 되었다.

알츠하이머는 스스로 완벽하게 확신하는 정말로 중요한 결과가 아니면 발표하기를 꺼렸고, 자신의 연구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으므로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남들과 다툰 적이 없었다. 뮌헨대학 정신과의 부교수 겸 해부실험실 책임자로서 성실한 교육자이기도 했던 그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현미경 실험실에서 지냈다. 학생들과 함께 현미경을 보며 조직의 병리 소견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면 피우던 시가를 옆에 내려놓는 그의 버릇 때문에 일과가 끝날 즈음에는 학생들의 현미경 옆 실험테이블에 시가 궂초가 널려있었다고 전한다.

1912년 브레슬라우 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임명된 후 건강이 악화된 알츠하이머는 수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5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아마도 연쇄상구균 감염에 이은 류마티스성 심염과 신부전이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